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0집 제2호 (2004.12)

韓國 古代 黃海貿易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Yellow Sea Trade in Ancient Times

姜龍洙*

목 차

Ⅰ. 序言
Ⅱ. 黃海를 通한 古代 韓中貿易의 意義
Ⅲ. 初期國家의 韓中貿易
Ⅳ. 三國時代의 韓中貿易
Ⅴ. 張保皐時代의 韓中貿易
Ⅵ. 結言

Key Word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Yellow Sea Trade, Trade in Ancient Times.

Abstract

The rising of east-north economic bloc is notable in world economy due to the rapidly growth of china economy. The China's economic standing is gradually higher and higher because the joining of the WTO at 2001, development of the exterior open-door policy and the expansion of the trade between chain and several nations.

Since Korea and China normalized diplomatic ties in 1992, the two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in bilateral relations in the fields of economy and diplomacy in particular. The amount of Korea's trade with China has increased by over 20% a year on the average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of Korea and China.

That is to say, China was sixth trade partner by the end of 1993, based on the amount of trade. But China became third partner at 1993, second partner at 2003 and first partner at the first half of 2004, based on the amount of trade. Korea can not trade with China from the Korea's port opening period to Cold War period after second world war. But historically, the two countries have shared a active and long history of trade relations from the ancient times up to now.

This is because two countries get near geographically and two countries have a implication of history and culture. Not only had Korea trade with China at prehistoric age, but also at BC 7. We knew that Korea had traded with China very actively at ancient times through the Paekje(Korea's ancient country) people's village at Santung province and Changbogo's trade works. Korea-china trade rela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development of world economy. Therefor, based on reviewing the korea-china trade, I study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trade at the region of east-north asia.

* 昌原大學校 貿易學科 敎授, yskang@changwon.ac.kr, 055)279-7362

Ⅰ. 序 言

오늘날 世界經濟에서 가장 注目되는 것은 中國經濟의 急速한 成長으로 因한 東北亞 經濟圈의 浮上이라고 볼 수 있다. 中國은 2001년 11월 WTO(世界貿易機構) 加入으로 對外開放政策의 加速化와 交易量의 增加로 經濟的 位相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편 韓中貿易은 1992年 8月 韓·中 修交 以後, 兩國間의 經濟貿易協力關係가 發展하면서 兩國의 貿易規模는 年平均20% 以上의 增加를 보이는 等 世界貿易 發展史上 보기 드문 現狀으로 나타나고 있다. 卽, 交易額을 基準으로 볼 때 1992年 韓·中 修交 當時 中國은 韓國의 第6位의 交易對象國이었으나 1993年 3位로 上昇했고, 2003年에는 2位, 2004年 上半期에는 1位로 浮上하였다.

그리고 輸出額을 基準으로 보면 中國은 1992年 韓國의 第6位의 輸出對象國이었으나 2001年에는 日本에 앞서 2位로 浮上한 뒤, 2003年에는 美國을 제치고 우리나라 第一의 輸出對象國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輸入額을 基準으로 보면 中國은 1992年 韓國의 第5位의 輸入對象國에서 1993年 4位, 1994年에는 3位로 上昇한 以後 只今까지 3位를 維持하고 있다.

이 같은 韓·中貿易은 開港期 日本勢力의 膨脹에 따른 貿易의 萎縮과 20世紀初 韓國이 日本의 支配로 들어가면서 韓中貿易이 斷切되었고, 第2次 世界大戰 以後 이데올로기에 依한 冷戰體制로 貿易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같이 한때 韓中貿易이 斷切되긴 했지만 예부터 韓·中間은 貿易活動이 活潑히 이루어져 兩國의 經濟發展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東北亞地域의 經濟發展에 重要한 機能을 지니고 있는 韓中貿易에 對한 硏究의 一環으로서 古代 黃海를 中心으로 한, 先史時代, 初期國家時代, 三國, 渤海, 統一新羅時代의 韓中貿易에 對한 形態와 內容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Ⅱ. 黃海를 通한 古代 韓中貿易의 意義

古代 韓國의 歷史와 文化는 黃海를 舞臺로 하여 中國 大陸文化와 接觸·交流하는 가운데 發展해갔다. 이는 韓半島의 地理的 條件에 起因하는바 적지 않다. 黃海를 끼고 있는 西海岸 地方은 東海岸과 比較할 때 屈曲이 豊富한 까닭으로 陸上交通보다 海上을 通한 中國大陸과의 接觸이 매우 有利하였기 때문이다.

黃海를 舞臺로 韓·中間의 交易은 두 나라가 處한 內部的 事情과 兩國 關係의 推移

變化에 따라서 各其 一定한 影響을 받았다. 즉 韓半島 北部와 滿洲地方에 걸쳐서 位置한 古朝鮮이나 高句麗는 中國大陸과 隣接해 있었으므로 海上交通의 必要性이 거의 없었다. 反面, 南韓地域에 位置한 辰國이나 三韓, 或은 그 後身인 百濟와 伽倻, 新羅는 古朝鮮이나 或은 高句麗의 協力 없이는 陸上을 通한 中國과의 交涉이 事實上 不可能했던 까닭으로 海上交通에 全的으로 依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1]

古代 韓·中間의 交通體制에 있어서 陸路의 交通은 韓半島의 西北部에서 遙東半島를 거쳐서 中國의 北部에 이른다. 海路는 主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中國의 山東半島 北岸의 登州 等地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揚子江 下流의 明州 等地에 이르는 것이다. 登州地域에 이르는 航路는 두 갈래가 있어서, 韓半島의 西海岸을 北上하여 遙東半島의 東南海岸을 거쳐서 여러 섬(島)을 따라서 이르는 것과, 雞津半島 近海에서 直接 바다를 건너는 것이 있었다. 明州地域에 이르는 航路도 두 갈래가 있어서, 雞津半島 近海에서 바다를 건너서 中國 山東半島의 東南海岸을 거쳐서 中國의 沿海를 南下하여 明州 等地에 이르는 것과, 이와는 달리 韓半島의 西海岸을 南下하여 黑山島近海에서 바다를 건너서 明州 等地에 이르는 것이 있었으나, 이 航路는 古代에는 널리 利用 되지 않았었다.[2]

黃海貿易에 있어서 黃海의 自然的 特性을 보면, 첫째, 黃海는 얕은 바다와 複雜한 地形인 리아시스식 海岸으로 이루어져 있다. 黃海는 形成過程에 있어 平均 44미터로 一般的으로 水心이 낮고 海岸線이 複雜한데다 섬(島)들이 散在해 있다. 때문에 比較的 安全하고 海産物이 豊富하여 黃海沿岸의 사람들이 바다를 生活領域으로 삼았다. 發達된 灣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沿岸을 따라 먼 거리 사람들도 쉽게 接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많은 섬(島)들을 징검다리 삼아 바다 멀리 進出하여 活動範圍가 넓었으며, 海洋反對便에 있는 사람들과 直接 或은 間接接觸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黃海의 이러한 海洋的 特性은 海洋貿易의 發展에 좋은 條件이 되었다.

둘째, 黃海는 各 地域間의 海洋交通을 圓滑하게 하는 海流와 潮流, 바람(風)이 있다. 海流의 흐름은 航海術이나 造船術等의 發展을 가져왔고, 사람과 物品을 一定한 場所에서 一定한 場所로 移動시키는데 커다란 役割을 하였다. 때로는 人間의 意志와는 相關없이 人間과 文化의 移動을 可能케 하였다. 潮流는 沿岸航海에서 重要한 役割을 한다. 韓半島의 西南海岸과 中國의 東海岸은 潮流가 매우 빠르고 方向의 地域的 偏差가 매우 甚하다. 潮流의 움직임은 古代 黃海貿易에 絶對的인 影響을 끼쳤다. 이 같은 潮流에 익숙하고, 그 特性을 잘 把握하는 集團이 海上圈을 掌握할 수 있었다. 바람(風)은 海上貿易環境에 있어서 絶對的이다. 특히 季節風은 一定한 方向性이 있기 때문에 바람(風)을 常時的으로 活用할 수가 있다. 東亞細亞는 季節風 地域이다. 黃海나 東支那海는 冬季에

1) 李基東, 黃海를 통한 古代 韓中關係史의 展開, 「震檀學報(68)」, 震檀學會, 1989, p. 173.
2) 全海宗, 三國時代 및 統一新羅時代의 韓·中交流, 「震檀學報(68)」, 震檀學會, 1989, p. 178.

는 北西風이며 때때로 偏北에서 偏北東風이 불고, 夏季에는 偏南 또는 偏南東風이 많다. 봄(春)에서 여름(夏)에 걸쳐 부는 南風系列의 바람(風)은 中國 南部海岸과 韓半島, 日本列島와의 交流를 可能케 한다. 反面에 가을(秋)에서 겨울(冬)에 걸쳐 부는 北風系列의 바람(風)은 韓半島 北部와 中國의 中部 혹은 南部海岸과의 交流를 可能케 하였다.

黃海를 通한 韓·中間의 關係는 歷史時代 以前부터 始作된 듯하다. 新石器時代 西海岸 地域에는 靑銅器文化의 痕迹이 많이 發見되고 있다. 大同江流域, 漢江流域, 榮山江流域, 寶城江流域 等이 各其 特色을 가진 文化圈으로 分類되며, 錦江流域과 中國華北係 靑銅器文化와의 交流하였다는 것은 海洋을 通한 交易圈이 形成되었음을 示唆하는 바가 크다.[3] 最近의 考古學的 硏究 成果에 依하면, 벼농사 技術은 黃海의 海上루트를 通해서 中國으로부터 傳해진 것이 거의 確實해지고 있다. 이는 韓半島 西海岸과 中國 沿岸地方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찍부터 黃海를 舞臺로 하여 서로 交流했던 것을 말해주는 端的인 例이다.

Ⅲ. 初期國家의 韓中貿易

韓中兩國間의 貿易은 文獻上의 記錄에 依하면 BC7世紀頃부터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中國 春秋時代 齊나라의 宰相인 管仲(?~B.C.645)의 著作으로 알려져 있는 <管子>에 依하면, 古朝鮮은 오늘날 山東省 北部에 位置했던 齊나라와 交流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當時 齊의 北쪽에는 燕나라가 있었고, 古朝鮮은 이 燕과의 國境을 接하고 있으면서 對峙하고 있을 때이므로, 古朝鮮과 齊와의 貿易은 畢竟 海上을 通하지 않고는 不可能했을 것이다. 이는 古朝鮮이 어느 때부터 黃海를 通한 山東半島地方과 交易했던 事實을 暗示하는 資料로 볼 수 있을 것이다.

中國 戰國時代 燕의 貨幣인 明刀錢은 平安北道 地方에서 集中的으로 出土된 바 있고, 그 下限線이 淸川江 一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 傳播徑路를 오로지 陸路에만 局限시켜 생각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찍이 全羅南道 康津(혹은 務安)에서 明刀錢 2枚가 發見되었다는 事實은 海上通路가 있었음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古朝鮮 時代에도 이미 交換經濟가 相當히 發達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古朝鮮 時代에 이미 子母錢이라는 貨幣가 使用되었으며 古朝鮮의 法律인 犯禁八條에도 50萬이란 돈(錢)에 關한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짐작할 수 있다[4]. 그러나 當時의 돈이 金屬貨

3) 尹明喆, 古代 韓中(江南)海洋交流와 21世紀的 意味, 「中韓人文科學硏究」 3輯, 中韓人文科學硏究會, 1998, pp. 219~221.

4) 漢書 地理志 樂浪郡條, 「樂浪朝鮮民犯禁八條 相殺 以當時償殺 相償 以穀償 相盜男沒入 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 50萬」.

幣인지 非金屬貨幣인지는 不確實하다[5]. 但只 子母錢이 靑銅器 時代인 點으로 보아 當時의 貨幣를 銅製인 것으로 보여진다[6].

古朝鮮에 이어 部族國家의 發展期인 扶餘, 三韓(馬, 辰, 辨韓) 時期에는 農業과 手工業이 發達함에 따라 貿易이 發展하였다. 扶餘에서는 일찍부터 各種 農産物이 生産되었고 牧畜業이 發達하였다. 또한 手工業이 發達하여 高級 緋緞이 生産되었으며 鐵製 生産道具를 널리 使用하고 있었다[7].

이와 같이 手工業과 農業 및 牧畜業의 發達에 依하여 蓄積된 剩餘 生産物의 增加에 따라 富의 蓄積은 必然的으로 交換經濟의 發展을 促進시켰다[8].

夫餘는 支那民族과의 對外貿易이 行하여 졌을 뿐만 아니라 高句麗와 鮮卑族과도 貿易去來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後漢書 夫餘條에 依하면 이미 西紀 49年에 夫餘에서 貢物(禮物)을 中國으로 바침에 對하여 中國에서도 이에 贈答하는 것으로서 每年 貿易을 繼續하게 되었다[9]. 또한 西紀 120年에 夫餘에서는 尉仇台를 漢나라에 보내어 禮物을 獻納하게 하였던 바 後漢王은 尉仇台에게 많은 物品 (印綬, 金綵등)을 주었다[10].

夫餘의 對中國 貿易이 가장 盛하였던 때는 後漢 光武帝 (25~57年)때였다. 이는 晋書 夫餘國傳에 「武帝時頻來朝貢」이라는 記錄을 보더라도 能히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沃沮는 지금의 咸鏡道 地方이며 土地가 肥沃하여 農業이 發達하고 東海에 接面하므로 漁業이 發達하였다. 또한 婚姻 習俗에 貨幣가 使用되었다[11]. 當時의 貨幣가 婚姻關係에만 限定된 것이 아니라 商品의 流通에도 使用되었다고 본다. 이 時代에 金·銀 兩種으로 鑄用한 無文錢이 使用되었고 後漢과의 貿易通商에까지 貨幣가 使用되었다고 한다[12].

한편 咸鏡南道와 江原道 北部地域에 位置한 東濊는 農耕生活에서 麻布와 綿布를 織造하였고 明紬를 짰으며 또한 特産物로서는 有名한 檀弓과 班漁皮(海豹皮), 文豹, 果下馬 등이 있음을 볼 때 牧畜과 漁撈, 狩獵, 手工業 等의 生産力의 程度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特産物은 大槪 中國으로 輸出되었던 것이다[13].

---

5) 崔虎鎭, 韓國貨幣小史, 瑞文堂, 1974, p.11.

6) 柳子厚, 朝鮮貨幣考, 1940, p. 24.

7) 三國志 魏書東夷傳 夫餘條, 「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袍袴 履革鞜 出國則尙繒繡錦罽 大人加狐狸狖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8) 劉敎聖, 韓國商工業史 (韓國文化史大系 I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65, p. 974.

9) 後漢書 東夷傳 夫餘條, 「夫餘王遣使奉貢 光武厚答報之 於是命歲通」.

10) 後漢書 東夷傳 夫餘條, 「永寧元年 乃遣嗣子 尉仇台詣闕貢獻 天子賜尉仇台 印綬金綵」. 當時의 「奉貢」「貢獻」 등은 主從關係에 대한 單純한 義務的 禮物이 아니라 國際間의 公的 貿易인 것이다.

11) 三國志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 「土地肥美 背山向海 宜五穀 善田種」, 「至成人更還女家 女家責錢 錢畢乃復還婿」.

12) 柳子厚, 前揭書, pp. 40~41.

13) 三國志 濊傳, 「有麻布蠶桑 作綿 曉候星宿 豫知年歲豊約....樂浪檀弓出其地 其海出班漁皮 土地

또한 漢江 以南의 諸部族 社會를 辰國이라 하였는데 이 辰國의 商人들은 B.C 2世紀에 漢나라와 貿易을 하고 있었다[14].

辰國은 後에 三韓으로 分立되었다. 卽 B.C 2~1世紀 頃에 朝鮮王 箕子準은 衛滿의 侵略을 받아 辰의 東北界인 廣州地方으로 移住하여 韓王이라 自稱하고 그 後 北으로부터 移住民이 많아지면서 辰國의 社會, 經濟는 그들로부터 많은 影響을 받았다. 그 結果 새로 改編된 것이 馬韓, 辰韓, 弁韓의 三韓이다[15].

弁韓에서는 鐵이 生産되어 韓(辰, 馬韓)과 濊 및 멀리 倭寇에까지 鐵을 供給함으로써 重要한 貿易品이 되었으며 또한 鐵은 마치 中國에서 鑄貨를 使用하듯이 商去來時 交換手段으로 使用하였으며 또 樂浪郡과 帶方郡에도 供給하고 있었다[16]. 또한 後漢書 辰韓條에 「凡諸貿易, 皆以鐵爲貨」라는 記錄을 보면 그 當時 이미 鐵이 貿易에 있어서 貨幣로 利用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三韓은 工業과 商業이 發達됨에 따라 특히 國際間에 있어서의 貿易過程에서 交換方法으로서 貨幣가 通用되었던 것이다.

당시 弁辰(弁韓)의 鐵이 砂鐵로 採取되었으며 砂鐵은 鐵場에서 製鐵되어 鐵製道具의 材料로 使用되었을 뿐만 아니라 一般的 流通手段으로도 使用되었으며 또한 鐵은 國際貿易 商品이었던 것이다.

한편 州湖(濟州道)商人들도 中韓(馬韓)에 乘船 往來하면서 通商去來를 行하였다[17]. 그리고 濟州道 濟州市에서 漢나라 貨幣가 發見된 일이 있다. 1936年 濟州 山地港 築港 工事時에 五銖錢과 貨泉, 大泉五十, 布貨(布錢)등이 出土되었다. 여기서 前漢 末 王莽時에 鑄造된 古錢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遺物은 州湖 商人이 中韓과 貿易할 때에 反對給付로 받아 가지고간 遺物로 推定되고 있다[18]. 또한 漢나라 王莽時代의 貨幣인 貨泉 1個가 金海 貝塚에서도 出土되었다. 이 貨泉은 王莽 天鳳元年에 처음으로 鑄造되어 王莽의 沒落과 함께 廢止되었다[19]. 그리고 金海 貝塚에서는 子安貝(cowry)도 出土되었는데 이는 中國에서 鑄貨가 流通될 때까지 熱帶地方의 海岸에 棲息하고 있는 子安貝를 重要한 貨幣로 使用하였다[20]. 그러므로 이 時期에 中國 大陸과도 貿易이 盛行하였다고 생각된다.

饒文豹 又出果下馬 漢桓時獻之」.

14) 韓國貿易協會, 韓國貿易史, 1972, p.19.

15)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 震檀學報, 第1卷(1934) 및 第3卷 (1935) 參照.

16) 三國志 魏書 弁辰傳, 「國出鐵 漢濊倭皆從取之 諸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17) 三國志 韓傳,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乘船往來 市買中韓」.

18) 李丙燾, 金載元, 韓國史(古代編) 乙酉文化社(震檀學會), 1959, p. 205.

19) 崔虎鎭, 前揭書, p. 15.

20) 韓國造幣公社, 韓國貨幣全史, 1971, p. 3~4.

Ⅳ. 三國時代의 韓中貿易

韓國古代貿易의 形態는 朝貢貿易과 民間私貿易을 들 수 있다. 朝貢貿易은 大陸國家와의 사이에 公式으로 物品交換을 行한 貿易의 形態로서 主로 國家의 使節團에 依해 行하여 졌으며 政府間의 禮物交換的 性格을 띠고 있었다. 三國時代에 들어오면서부터 朝貢 形式의 對外貿易이 차츰 定期的이며 大規模的으로 이루어지기 始作하였다[21].

이같이 三國時代의 對外貿易은 對外政策上으로 보아 朝貢貿易이었으며, 地理的 特性으로 보아 中國, 日本과의 隣接貿易이었고, 商品的 特性으로 보아 貴族의 奢侈品 中心의 貿易이었으며, 經營形態的 特性으로 보아 國王과 官吏에 依한 官營貿易이었다.[22]

三國時代의 對中國貿易은 陸路보다는 主로 海路를 많이 利用하였다[23]. 그 理由는 海上 交通의 發達과 國境 地域의 頻煩한 衝突 事故로 使臣들의 往來가 不適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百濟, 新羅, 高句麗는 大部分 海路를 거쳐 大陸과 通交하였다[24].

1. 高句麗의 對中國貿易

高句麗는 初期의 國家的 成長을 이룩하는 過程에서 周圍의 많은 强敵들과 줄기찬 鬪爭을 展開하면서 發展하였다. 國家 成立 初期의 高句麗는 北方 夫餘 社會와 隣接함으로써 漢郡縣과 交涉이 많았으며 後漢과의 貿易이 이루어졌다. 卽 後漢 光武帝 7年(高句麗 3代 大武神王 14年 : AD 31年) 12月에 高句麗가 漢나라 光武帝에게 使臣을 보내어 朝貢品을 交換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光武 8年에도 朝貢貿易이 이루어졌다.

高句麗는 6代 太祖王때부터 國家體制가 確立되었으며 漢의 侵略을 擊退시키고 周邊의 諸部族을 統合하여 國土를 膨脹시켜 國力이 크게 伸張함에 따라 中國과의 通商을 能動的으로 推進하였으며 貴族의 奢侈品 需要가 增大됨에 따라 國境地域의 私貿易도 이루어 졌으나 朝貢貿易이 主流를 이루었다[25].

當時의 朝貢貿易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金種淳, 貿易槪論, 三英社, 1973年, p.153.

22) 朴炳鎬, 韓國貿易論, 經文社, 1980, p.19.

23) 海東繹史, 「自晋至六朝 高句麗與北朝接壤 故由陸路通聘 而羅濟諸國 皆由海路矣」, 「按六朝時百濟新羅皆用海路朝貢 而高句麗亦越海通南朝」, 「高句麗 乘船汎海 使譯常通」, 「自晋過江泛海東使有高句麗百濟」「胡三省曰晋時 自建康出大江 至于海 轉料이至登州大洋 蓋南朝之通句麗 實由此道」

24) 韓國貿易協會, 前揭書, p.23.

25) 後漢書 高句麗傳, 「光武建武七年 冬十二月 高麗王 遣使奉貢」, 「建武八年 高句麗遣使朝貢」.

高句麗	中國	出典 및 記事
太祖王 57年	後漢安帝永初 3年	後漢書,「高句麗 遣使貢獻」
〃 59年	〃 〃 5年	〃 「高句麗王宮 遣使貢獻」
新大王 9年	後漢靈帝熹平 2年	海東歷史 卷33 交聘志 參照
西大王 7年	晋武帝咸寧 2年	〃 〃 「高句麗 遣使貢方物」
〃 9年	〃 〃 4年	〃 〃 「高句麗王釗遣其世子 朝於慕容皝
〃 13年	〃 太康 3年	〃 〃 「高句麗遣使稱臣於皝貢其方物」
故國原王 13年	東晋康帝建元 元年	〃 〃 「高句麗王釗遣其弟稱臣入朝於燕」
〃 22年	〃 穆帝永和 8年	〃 〃 「高句麗王釗遣使於慕容儁謝恩貢其方物」
〃 25年	〃 〃 11年	〃 〃 「高句麗王遣釗使詣燕納質修貢」
〃 27年	〃 〃 升平元年	〃 〃 「高句麗遣使獻 樂浪檀弓」

그 후 高句麗는 19代 廣開土王의 領土 擴張에 따라 國內外의 貿易活動은 더욱 强盛하였으며 20代 長壽王 때에 對中國 公貿易이 絶頂에 달하였다. 長壽王 15年(427年)에 國都를 鴨綠江 流域의 通溝로부터 大同江 流域인 平壤으로 옮기어 經濟的으로 豊富한 條件을 한층 더 갖추게 됨으로써 貿易의 必要性이 增大되었으며 長壽王 60年(472年) 魏에 助攻한 이후 公貿易이 크게 增加하였고 貿易量도 倍增되었다[26].

高句麗의 對中國 主要 輸出品은 馬, 豹皮, 黃金, 白銀, 角弓, 檀弓, 千里馬, 生態皮 등이었으며 輸入品으로는 衣冠, 絹織物, 車旗之飾, 劍佩, 水牛, 能言鳥 등 奢侈品이었다.

2. 百濟의 對中國貿易

百濟는 地理的으로 中國과 交通이 容易하였고 또한 高句麗의 南侵對備의 必要性에서 中國과 交涉하여 佛敎 및 南朝文化를 吸收하여 佛敎藝術이 成長, 發展하였으며 그 藝術은 바다를 건너 日本에 傳播되어 所謂 飛鳥時代 藝術의 母胎를 이루었다 [27].

百濟는 高句麗, 新羅 뿐만 아니라 中國의 南朝諸國과 日本 등에 國際的 公貿易을 하였다. 百濟가 中國에 輸出한 物品은 主로 錦布, 海産物, 果下馬, 明光鎧, 金甲雕斧 등이며 輸入한 物品은 佛典, 錦袍, 彩帛 등이었다.

3. 新羅의 對中國貿易

新羅는 6世紀부터 對外貿易이 活潑히 展開되었다. 新羅에서 唐나라에 보낸 輸出品

26) 三國史記 卷第十八 高句麗 本記 第六 長壽王條,「六十年春 二月 遣使入魏朝貢 秋七月 遣使入魏 朝貢 自此已後 貢獻倍前 其報亦賜亦加稍焉」.

27) 盧啓鉉, 韓國外交史硏究, 甲寅出版社, 1983, p.232.

(公貿易)을 보면 金, 銀, 銅, 針, 針筒, 牛黃, 細布, 馬, 人蔘, 美毯, 錦, 絹織物, 海豹皮, 狗, 白氈布, 紵衫段, 裝身具, 海松子(잣), 昆布 등이었으며, 輸入品인 聘答品 등으로는 錦糸, 綾羅, 袍帶, 金銀帶, 金銀細工物, 茶, 藥劑, 書籍 등 이었다[28].

4. 渤海의 對中國貿易

渤海는 高句麗가 滅亡한 後 高句麗의 遺將 大祚榮(高王)이 建國하였다.

高句麗가 滅亡한 後에 그 一部가 新羅의 支配 밑으로 들어 갔으며, 나머지 廣大한 領土는 統一된 國家에 依하여 支配되지 못하였다. 이에 對하여 옛 夫餘地域을 中心으로 새로 建國한 것이 渤海였다.

渤海의 對唐貿易은 鴨綠江口를 거쳐 陸路 或은 海路를 利用하였는데 海路를 擇하는 境遇 登州가 上陸地였다. 渤海商人들은 渤海館을 中心으로 中國人과 交易하였는데 輸出品은 各種 工藝品과 毛皮類, 藥劑 등이었고, 輸入品은 絹織物, 麻布, 書籍 等이 있었다.

V. 張保皐時代의 韓中貿易

新羅는 唐軍의 援助를 받아 三國의 統一에 成功하였으나, 그 後 唐의 侵略性이 露骨化됨에 따라 唐의 勢力을 韓半島에서 몰아 내었다. 그로 말미암아 一時 羅·唐 國交가 中斷되었으나 얼마가지 않아 다시 國交가 再開되었다.

統一 新羅는 唐과의 國交를 再開한 後부터 每年 使節을 보내고 끊임없이 留學生과 留學僧을 派遣하여 交物交流가 旺盛하게 되었다. 例를 들면 文聖王 6年에 唐으로부터 돌아온 質子(宿衛)等과 滿期가 되어 歸國한 留學生等이 모두 105人이었다고 한다[29]. 그리고 佛敎의 僧侶로서 唐에 건너간者 가운데 學德이 높은 入唐求法僧만 들어도 約 50名이나 되었다[30].

三國時代에는 大槪 原料的인 土産品을 가지고 中國과 交易하였으나 統一新羅 以後부터는 各種 生産 加工品을 交易하였다. 이는 新羅産業의 急速한 發展을 證明하는 것이며 對外貿易品의 質的 變化를 認知할 수 있는 것이다[31].

統一新羅의 産業發達은 一面 新羅人의 生活狀態의 變化를 가져왔으며, 이 時期의 慶州는 人口 17萬 8,936戶나 되는 首都의 繁榮을 가져왔던 것이다[32].

---

28) 海東繹史 卷二十五 및 卷二十六 參照.
29)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十一 文聖王條, 「放還質子及年滿合歸國學生共一百五人」.
30) 李能和, 朝鮮佛敎史, pp.53~57.
31)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야(1), 震檀學報 第1卷, 1934, pp.92~94.

統一新羅 以後 안으로는 産業이 發達되고 밖으로는 大唐交易이 促進됨에 따라 文化의 向上과 物品의 需要가 增大하였다. 이에 따라 貿易은 公貿易인 朝貢貿易은 勿論이고 私貿易인 民間貿易도 旺盛하였다.

新羅는 國運 隆昌의 經濟적 基礎를 大部分 海上貿易에 依存하였으며 이로 因하여 歷史上 類例를 볼 수 없는 海上發展을 이룩하였다 [33].

이 時期의 對唐貿易은 每年 朝貢이 繼續 이루어 졌으며, 貿易路는 主로 海路를 利用하였다. 當時의 海上交通路는 2個의 徑路가 利用되었다. 하나는 只今의 全羅南道 靈岩方面에서 黑山島를 거쳐 中國 上海 方面으로 通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京畿道 南陽灣(唐城浦)에서 黃海를 건너 中國 山東半島로 가는 길이 있었다.[34]

山東半島의 登州는 新羅 朝貢船의 到着港이며 極東諸國의 使節團이 上陸하는 地點으로서 使臣들이 留宿하고 商去來를 하는 新羅館이 있었다.

이 新羅館은 新羅의 朝貢貿易, 기타 對唐 交涉의 一切를 取扱하고 新羅 居留民의 便利를 보아 주던 機關이었다. 卽 入唐 使臣 및 商人의 留, 宿泊은 勿論 入唐 手續, 上陸者의 交通便宜 提供, 歸國 乘船者의 便益, 羅·唐 文書의 傳達 等을 取扱하던 곳이다.

新羅의 商人과 留學生, 留學僧 等이 中國大陸으로 크게 進出하게 됨에 따라 上陸地인 主要 港口 즉 山東省으로부터 江蘇省에 걸친 海岸一帶에는 新羅坊이라 부르는 新羅人의 集團 居留地가 建設되었으며 이를 監督하는 機關으로 新羅所가 있었다. 그리고 新羅人 居留地의 하나인 山東省 文登縣 赤山村에는 張保皐가 創建한 法花院이란 寺院이 있어 信仰의 本據地로서 講道會때에 參席하는 新羅人이 무려 250人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新羅坊에는 勾唐 新羅所(押衙 : 管領)라는 行政機關이 있었으며 그 職員은 新羅人으로 構成되어 있었다[35].

新羅의 對唐貿易은 盛唐文化에 도취하여 그 發達된 文物을 輸入하였으며 또한 自國의 主要 生産品도 輸出하였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2年條, 聖德王 22年條, 同 29年條, 同 33年條, 景文王 9年條 및 舊唐書 新羅傳 等에 依해서 當時의 輸出入 物品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 卽 主要 輸出品으로는 果下馬, 牛黃, 人蔘, 金, 銀, 銅, 魚牙紬, 朝霞紬, 細布, 頭髮(美髢), 海豹皮, 其他 各種 金銀細工品等이었으며 主要 輸入

32) 三國遺史 卷一 辰韓條,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三十五金入宅 言富潤大宅也」.

33) 日野開三郎, 羅末三國の鼎立と大陸海上交通貿易, 朝鮮學報, 第十八輯, p.11.

34) 韓半島와 中國大陸을 連結하는 古代 海上航路는 우리의 古代國家들과 中國北部의 여러나라를 往來한 北中國航路와 南部中國을 連結하는 ②南中國航路로 大別된다. ①北中國航路는 山東半島에서 遙東半島와 韓半島의 沿岸을 거치는 노철산航路와 山東半島와 黃海道間의 바다를 直接橫斷하는 黃海橫斷航路로 區分된다. 南中國航路는 中國本土와 韓國南端間에 가로놓인 東支那海를 가로질러 斜斷하는 航路이다. 張保皐는 주로 黃海橫斷航路를 活用하였다.
(임종관, 張保皐 海上活動의 再照明과 21世紀 海洋思想鼓吹方案, 韓國海洋水産開發院, 1998, p.51. 參照)

35)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卷四 參照.

品으로는 羅, 綿, 綾, 綵, 衣服, 書籍, 其他 文房具 等이었다.

新羅人의 海上交通의 發達은 新羅의 造船術의 卓越함을 反證해 주는 것으로 當時 優秀한 造船技術을 日本에 傳하여 日本 造船術에 크게 貢獻하였다[36]. 新羅는 位置上 航海術이 幼稚하였으나 漢江流域을 占領하고부터는 大陸 進出의 機會를 얻으므로 長足의 發展을 가져왔던 것이다[37].

新羅의 對外貿易은 唐이나 日本 以外에도 멀리 아라비아商人들이 唐을 거쳐서 들어오거나 혹은 直接 新羅에 와서 交易하였으며 그들을 通하여 各種의 寶石과 毛織物, 香料 等의 南洋産物이 輸入됨으로써 新羅 貴族들은 價額을 不計하고 앞을 다투어 이를 사들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弊端을 막기 위하여 王命으로 奢侈를 琴하기까지 하였다[38]. 이와 같이 當時의 貿易品은 大部分 貴族의 奢侈品이었으며 大衆의 生活必需品은 아니었다.

新羅의 民間 海上活動은 8~9世紀에 가장 活潑하였다. 이는 骨品制에 依하여 中央의 政治 舞臺에 參與할 수 없는 地方勢力들이 그 눈을 海外로 돌림으로써 그들의 重要한 生活 舞臺를 海上貿易에서 찾게 되었던 것이다[39].

이 때 海上貿易 活動을 한 代表的 人物은 張保皐(一名, 弓福, 弓巴)였다.[40]

張保皐는 莞島(淸海鎭) 出身으로서 唐에 건너가 徐州地方에 있는 軍中小將으로 活動하였으며 文登縣 赤山村에 法花院을 設立하여 在唐 新羅人의 活動을 後援하였고 興德王 때에는 歸國하여 同王 3年(828年)에 只今의 莞島(莞島邑 長佐里, 竹靑里 一帶)에 淸海鎭을 設置하여 海賊 統治에 從事하였다[41].

---

36) 劉敎聖, 韓國商工業史(韓國文化史大系I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65, p.1019.

37) 今西龍, 新羅史硏究, 圖書刊行會 (日本), 1970, p.341.

38) 三國史記 新羅本紀 哀莊王 七年條,「又禁以綿繡爲佛事 金銀爲器用 宣令所可 普告施行」.
同上書 卷第三十三 雜誌 第二色服條,「興德王 九年 下敎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奇却 嫌土産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國有常刑」.

39)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82, p.116.

40) 張保皐(790年頃~841年頃)는 9世紀 東亞細亞 海上圈을 掌握한 海洋貿易家로서 우리나라 歷史上 特記할 만한 人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出生背景(出生年度, 出生地, 家門 等)이나, 幼年時節에 관한 記錄이 稀少하고 그것도 分明하지가 않다
그러나 張保皐의 活躍上에 대하여는 中國 史書의 記錄으로는 中國正史의 하나인 新唐書卷220 東夷傳 新羅條에 關聯記事가 실려 있다. 이는 唐나라 詩人 杜牧(803~852)이 지은 樊川文集 卷6의 張保皐·鄭年傳을 그대로 引用한 것이다. 日本의 記錄으로는 中國에 가서 張保皐와 中國內 新羅人들의 도움을 받아 佛敎修業을 마치고 9年만에 歸國한 僧侶 圓仁(794~864)의 紀行文인 入唐求法巡禮行記와 日本 正史인 日本後紀, 續日本紀, 續日本後紀에 張保皐에 關한 記事가 仔細히 실려 있다. 우리나라의 記錄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比較的 簡略하게 紹介되고 있는데 相當部分이 앞서 言及한 中國의 記錄을 再引用한 것이다.

41)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十 興德王 三年條,「淸海大使弓福張氏 (一名 保皐), 入唐徐州爲軍中小將, 後歸國謁王, 以卒萬人, 鎭淸海」.

즉 그는 當時 西南海岸에 中國인 海賊들이 橫行하여 新羅人의 生命과 財産을 掠奪하고 또한 新羅人을 拉致하여 奴隷로 中國沿岸에서 賣買되고 있음을 目擊함에 그는 義憤을 느껴 唐에서 歸國하여 興德王에게 이 事實을 알리고 軍事 一萬人으로써 淸海에 鎭營을 設置하고 淸海鎭 大使로 任命되어 海賊退治를 敢行하였다[42].

이렇게 하여 張保皐는 西南海邊의 防備를 위한 責任者로서 淸海鎭 大使가 되자 唐에 連絡하여 奴隷 輸入을 嚴禁케 하는 한편 海賊行爲를 하는 者들은 武力으로써 徹底히 團束하였다. 그리고 黃海와 東支那海의 貿易圈을 掌握하여 新羅의 豪商이 됨으로서 그의 名聲이 世上에 알려졌다[43].

張保皐는 그가 蓄積한 富의 一部를 喜捨하여 新羅坊의 法花院에 年牧護 500石의 寺院維持 田庄을 購入할 程度로 그의 財力이 컸던 것이다[44]. 張保皐는 大船舶을 많이 만들어 中國과 日本에 往來하면서 大規模의 中繼貿易을 行하였다.

그는 文聖王 2年(840年)에 日本 太宰府에 使人을 보내어 貿易을 試圖하였으나 日本政府를 代表한 外交機關인 太宰府가 個人의 使人을 相對로 通商한 前例가 없었기 때문에 拒絶하였다. 그러나 張保皐의 使人이 가지고 간 馬鞍 등 貿易品은 民間을 相對로 交易하게 하였으며 日本側에서는 이로 인하여 日本人의 家産蕩盡을 걱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貿易量이 大規模였다고 본다[45].

張保皐의 對唐貿易은 對日貿易보다 더욱 積極的이었다. 그는 新羅人의 勢力 範圍인 楊子江口로부터 山東半島에 이르는 一帶를 中心으로 積極的인 對唐 貿易을 展開하였다. 특히 山東省 登州 地方은 옛부터 우리나라와 中國과의 海上交通의 要衝地였으며 그 중에서도 法花院은 居留民의 精神的 支柱임과 同時에 本國과의 連絡處였을 뿐만 아니라 國際的 情報交換所로 利用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新羅에 派遣되는 中國의 使臣들도 海路를 넘기 前에 먼저 登州의 法花院에 들러 新羅의 事情을 알아보고 事前 便宜를 提供받았던 곳이다[46].

한편 新羅 上船 및 日本人들도 亦是 新羅人의 居留地인 登州地方에 들러 海上情報를 蒐集하였다. 그리고 張保皐는 日本에 廻易使를 派遣한 것과 같이 對唐貿易에 있어서도 遣唐買物使의 引率下에 貿易船을 派送하였다. 즉 張保皐는 唐나라에 遣唐賣物使와 日本에 廻易使를 派遣하여 羅·唐·日 三國을 舞臺로 中繼貿易을 獨占하였던 것이다.

---

42) 三國史記 卷第四十四, 列傳 第四 張保皐條, 「遍中國以吾人爲奴婢 願得鎭淸海 使賊不得掠人西去 淸海 新羅海路之要 今謂之莞島 大王 與保皐萬人 此後海上無鬻鄕人者 保皐旣貴」.

43) 朴東百, 新羅下代의 對唐關係, 馬山大學論文輯 第4輯, 1982, pp.238~239.

44) 韓國貿易協會, 前揭書, p.26.

45) 續日本後記卷九, 承和 七年 十二月 己巳條, 「太宰府言 藩外新羅臣張保皐 遣使獻方物 卽從鎭西追却焉 爲人臣無境外之交也」.

46)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卷二 開成 四年(839年) 六月條, 「二十七日 聞 張大使交關船二隻 到赤山浦 二十八日 大唐天子 差入新羅 慰問新卽位王之使 淸州兵馬 使吳子陳 崔副使 王判官 等 三十餘人 登來寺 裡相着 衣頭張保皐 遣大唐賣物使 崔兵馬司 來寺問慰」.

張保皐의 貿易使節에 廻易使, 遣唐買物使 等의 稱號가 붙게 된 것은 그 個人的 性質을 떠나 이미 一種의 公的 性質을 지닌 것으로 新羅를 代表한 貿易이었으며 同時에 그의 貿易規模에 있어서도 普通 個人的인 貿易規模가 아니었으므로 張保皐의 貿易은 적어도 國際貿易上에 있어서 新羅의 國家的 存在였음을 엿볼 수 있다[47].

張保皐는 淸海鎭을 中心으로 構築한 經濟的, 軍事的 背景을 利用하여 新羅의 中央政治에도 關與하였다. 그는 王位 繼承 싸움에서 王族 金祐徵을 도와 王位에 오르게 하였으니 그가 곧 新羅 31代 神武王이다. 神武王이 卽位하던 839年에 張保皐는 그 功으로 感義軍使에 封하여 졌고 文聖王이 卽位하자 淸海鎭 將軍이 되었다[48]. 그러나 그의 딸 納妃問題에 얽혀 閻長에게 殺害당하였다[49]. 이로써 淸海鎭을 中心으로 한 張保皐의 黃海海上貿易은 終熄되었으며 그 후부터 점차 新羅人의 對外貿易活動은 衰頹하였다.

Ⅵ. 結 言

지금까지 古代 韓中貿易을 살펴보았다.

韓中貿易은 先史時代에도 黃海를 中心으로 活潑한 交易이 展開되었다. 이는 先史時代의 文化遺蹟地와 遺物을 通해서 밝혀지고 있다. 記錄上으로는 B.C 7世紀 頃 古朝鮮 時代부터 中國의 齊나라와 貿易이 이루어졌다. 古朝鮮 時代에 이미 貨幣가 使用되어 交換經濟가 相當히 發達하였으며 三韓時代에는 鐵이 生産되어 韓中貿易에 利用되었다. 그리고 新羅時代에는 積極的인 韓中貿易活動이 展開되었다. 즉 新羅人들은 積極的인 對外指向的 經濟, 外交政策을 통해 留學生 또는 外交使節의 資格으로 中國은 물론 印度까지 往來하면서 文化交流를 하였으며, 中國의 山東半島에 新羅坊과 莞島에 淸海鎭을 中心으로 極東亞細亞의 海上貿易을 掌握함으로써 높은 文化水準과 豊富한 經濟生活을 누렸다.

---

47) 金庠基, 前揭論文, (震檀學報 第3卷 1935), p.119.

48) 三國史記 卷第十一 新羅本紀 第十一 文聖王卽位年條, 參照.

49) 張保皐의 死亡年代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日本後紀」에 各各 記錄되어 있으나, 史料마다 死亡年代가 다르다. 「三國史記」에는 文聖王 8年(846) 봄에 暗殺당했다고 나와 있으나, 「三國遺事」에는 神武王 때인 849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續日本後記」에는 文聖王 3年(841) 11月에 暗殺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續日本後記」 承和 9年(842) 正月條에 閻長의 部下 李少貞이 日本에 가서 '張保皐는 이미 죽었다'고 하였고, 張保皐가 統括하던 莞島인 於呂系 等이 日本에 歸化하여 이르기를 '張保皐가 昨年(841) 11月에 죽었으므로 거기서 편히 살수가 없어 日本으로 왔다'고 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紀」에서는 前 淸海鎭 兵馬使 崔暈十二郞이 '國難'을 당해 845年 7月 現在 中國 漣水의 新羅坊에서 亡命生活을 하고 있음을 記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張保皐의 暗殺 時期는 846年 봄으로 보는 「三國史記」의 記錄보다는 841年 11月中으로 보는 「續日本後記」의 記錄이 妥當性이 있다고 본다.(崔珉子, 「世界人 張保皐와 地球村 經營」, 범한, 2003, p. 95 參照)

또한 渤海 역시 積極的인 對外指向的 貿易, 外交政策을 推進함으로써 海東盛國이란 稱號를 들을 程度로 文化國家로 發展하였다.

특히 張保皐(790年頃~841年)는 9世紀 東亞細亞 海上權을 掌握한 偉大한 海洋貿易家였다. 그는 일찍이 中國에 건너가 武寧軍의 軍中小將으로 活躍한 후, 山東省 文登縣 赤山(現 山東省 영성시 석도진) 기슭에 法花院을 創建하였다. 法花院은 宗教的 意味의 寺院일 뿐만 아니라 在唐 新羅人의 精神的 安息處인 반면 海上貿易活動에 따른 情報提供 및 交易窓口로서의 役割은 물론이고 海上貿易活動에 從事한 在唐 新羅人인 船員, 通譯官, 造船工, 造船修理工 等과 有機的인 關係를 갖는 人的네트워크를 構築할 수 있었다.

張保皐는 淸海鎭을 中心으로 在唐 新羅人과 在日 新羅人을 連繫하여 三角貿易을 하였을 뿐 아니라 中國內의 南北貿易을 擔當함으로서 古代黃海貿易을 活性化시켰다.

新羅의 西南海에 設置된 淸海鎭은 新羅가 對外貿易을 하는 關門이자 海上貿易의 本部였으며 同時에 東亞細亞 貿易의 中繼港이였다. 이 곳을 中心으로 張保皐는 唐나라의 山東半島에서부터 南中國을 잇는 沿岸 곳곳에 많은 據點을 갖고 貿易活動을 하였다.

그 가운데 代表的인 基地는 赤山浦와 楚州 그리고 揚州였다. 赤山浦는 北中國과 貿易을 하는 關門이자 法花院이라는 절이 있어 在唐新羅人들의 精神的 中心地 役割도 하였다. 楚州는 大運河를 通한 運送의 據點이자 運河流通을 通한 物流基地 役割을 하고 있었으며, 經濟的 中心地인 南中國과 政治的 中心地인 長安을 連結하는 關門이었다.

그리고 揚州는 沿海岸 大運河의 連繫運送을 擔當하는 南中國 貿易의 關門으로서, 東亞細亞·東南亞細亞·印度·페르시아·아랍 等의 商品을 交易하는 貿易中心地였다. 이같이 張保皐의 海上貿易活動은 東亞細亞 世界에 처음으로 海上秩序를 確立시켰으며 東北亞地域을 中心으로 自由貿易體制를 具現하였다.

世界 最初의 自由貿易主義를 提唱한 英國은 産業革命에 의해 工業이 發展되고 製品의 國際競爭力이 强化됨에 따라 自由貿易을 實現하고자 努力하였다. 이에 他國과의 通商協定을 締結, 그 結果 1860年에 英佛通商條約이 採擇되었으며, 뒤이어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諸國과 通商條約을 締結함으로서 自由貿易을 實現하게 되었다.

그러나 張保皐의 自由貿易은 英國의 自由貿易보다 約 10世紀나 앞서 實現되었다는 點에서 世界貿易史上 그 意義를 찾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歷史는 過去로부터 現在 그리고 未來에까지 連結된다. 오늘날 東北亞細亞의 經濟發展과 貿易의 役割 및 그 重要性도 결코 偶然한 것이 아니며 歷史的 産物임을 再認識하면서, 向後 韓中貿易 및 東北亞의 貿易은 世界經濟發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展望된다.